

가람본 『고금소총』에 대하여

김유진*

- I. 서론
- II. 『속고금소총서』의 발견
- III. 동양문고본과 가람본의 관계
- IV. 결론

<국문초록>

『고금소총(古今笑叢)』이본은 두 가지 계열이 전한다. 하나는 동양문고본으로 『어우야담(於于野談)』·『하담기문(荷潭記聞)』·『잠곡필담(潛谷筆談)』·『종남총지(終南叢志)』·『천예록(天倪錄)』에서 약간 편을 발췌하여 편집한 『고금소총』과 그 뒤에 홍만종의 『명엽지해(茗葉志諧)』가 붙어있다. 다른 하나는 가람문고본으로 『촌담해이(村談解頤)』·『어면순(禦眠楯)』·『속어면순(續禦眠楯)』에서 약간 편을 발췌하여 편집한 『고금소총』이다. 지금까지 『고금소총』이라 하면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의 편저(編著)로 동양문고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만종의 저서로 추정되는 『부부고(覆瓿藁)』가 발견되고 그 중에 『속고금소총서(續古今笑叢序)』가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고금소총』과 『속고금소총(續古今笑叢)』이 모두 홍만종의 편저작(編著作)이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관계 기록과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가람문고본의 경우 ‘고금소총’이라는 제명(題名)을 가탁(假託)한 것이 아니라 『속고금소총』에 홍만종이 편집해서 실어 놓은 약간 편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고금소총’이라 재명명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어: 고금소총, 동양문고, 가람문고, 홍만종, 패설, 성소화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1. 서론

『고금소총(古今笑叢)』은 필기류(筆記類) 패설집(稗說集)으로, 편찬자가 들었거나 읽었던 우스운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것이다.¹⁾ 당연히 패설집의 편찬자를 원창작자로 볼 수는 없다. 타인의 필기류 저작에 실린 이야기를 전재(轉載)한 것이기에 개별 일화(逸話)에 있어서는 그 창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편찬자가 패설집에 나름의 내적 질서를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사해 보이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재된 곳이 어딘가에 따라 다른 의미가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패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 작품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이 전재되어 있는 작품집의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²⁾

본고에서 『고금소총』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古今笑叢’이라는 표제(標題)를 공유하는 자료들 간에 혼선이 발생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별 패설집에는 그 표제가 같더라도 수록된 일화가 빠지거나 더 들어가거나, 혹은 아예 전체 이야기들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는 일차적으로 ‘옛날과 지금의 우스운 이야기 모음집’이라는 뜻의 ‘고금소총’이 보통 명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그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 일반적으로 ‘고금소총’이라 하면, 일본 동양문고본 『古今笑叢(附 蓂葉志譜)』을 가리킨다.³⁾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의 뒤에는 『명엽지해』가 붙어있고 『명엽지해』의 말미(末尾)에는 ‘현묵자(玄默子) 홍우해(洪于海)’가 이 책을 편찬했다는 허격(許格, 1607~1691)의 발문(跋文)이 있다. 여기서 ‘현묵자 홍우해’는 홍만중(洪萬宗, 1643~1725)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1) 필기는 문체를, 패설은 내용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임형택, 『李朝前期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視覺』, 創作과 批評社, 1984, 414~418면에는 조선 전기 문학 현상의 특별한 국면을 보여주지만 사대부 문학 일반에 포섭되지 않는 필기류 저작들에 대한 논의로 ‘附: 筆記·稗說의 發達-野乘과 詩話와 笑話’이 실려 있다. 여기서 임형택은 필기·패설의 내용 성격을 야승(野乘)·시화(詩話)·소화(笑話)로 분류하여 논한 바 있다.

2) 해당 자료에 실린 이야기들을 소화(笑話)라고도 하지만, ‘웃기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개념을 구사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생각하여 패설(稗說)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는 김준형, 『패설문학 연구』, 보고사, 2004, 12~18면에서의 주장에 공감하는 면이 있어서이다.

3) 동양문고본은 정용수,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고금소총·명엽지해』, 국학자료원, 1998에서 국역되었다. 해당 책의 뒷부분에 동양문고본이 영인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해당 자료를 동양문고본이라 약칭하겠다.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의 편찬자 역시 홍만중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⁴⁾

그러나 동양문고본 외에도 『고금소총』이라는 표제를 지닌 책이 있으니, 이는 『촌담해이(村談解頤)』·『어면순(禦眠楯)』·『속어면순(續禦眠楯)』의 이야기들을 발췌 수록한 가람본 『고금소총』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에만 주목하여 가람본에 대해서는 ‘고금소총’이라는 제명을 공유하는 별개의 자료로 간주하였다.⁵⁾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첫 번째 이유는, 1947년에 송신용(宋申用) 교열(敎閱)의 연인본(鉛印本) 『조선고금소총(朝鮮古今笑叢)』이 정음사(正音社)에서 출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선고금소총』 제1회에는 『열청재어수록(閱淸齋禦睡錄)』 즉 『어수록』이, 제2회에는 『촌담해이』·『어면순』·『속어면순』이 전제되면서 ‘고금소총’이라는 제명(題名)이 보통명사화 되었고 이로 인해 가람본의 존재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로, 민속학자료간행회(民俗學資料刊行會)에서 1958년 ‘고금소총’을 제명으로 하여 800여 화에 달하는 소화(笑話)들을 모아 유인본(油印本)으로 출간한 자료가 나오면서 이러한 사정이 심화된다.⁶⁾ 민속학본은 고래(古來)의 필사 방식이 아니라 한자를 적고 현토(懸吐)하는 방식으로 기록되

4) 정용수, 『洪萬宗의 『古今笑叢』考』, 『東洋漢文學研究』 제10집, 1996.

5) 金永堧, 『우리나라 笑話의 史的 展開樣相』, 『紀全女子專門大學論文集』(94年 9月), 1994; 정용수, 위의 논문; 김준형, 앞의 책 등 『고금소총』에 대한 논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자료를 가람본이라 약칭하겠다.

6) 이후 해당 자료는 ‘민속학본’이라 약칭하겠다. 간행한 주체인 ‘民俗學資料刊行會’의 정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임형택 선생님께서 당시 소장의 민속학본 『고금소총』 내지에 써 둔 메모를 보여주셔서 다음에 옮겨 놓는다. “이 古今笑叢을 간행한 사람은 任昌淳 先生의 傳言에 의하면 金榮雨氏라 한다. 金榮雨氏는 의붓아버지의 성을 따서 閔氏로 행세하다가 8·15 후에 金으로 바꿨다 한다. 그는 筆耕士를 하기도 했고 古書店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가 이 古今笑叢을 수집하여 간행한바 그 원자료는 자신의 수집도 있고 他人에 빌린 것도 있겠는데 東國文化社 社長 申在永氏에게 빌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다. 金氏가 刊行한 것으로는 古今笑叢 外에 東野彙輯이 있다. 東野彙輯은 原本이 張志永 先生 소장으로 빌리는 일은 慶北大 李在秀 교수가 했을 것이라 한다. 古今笑叢에 刊行者를 民俗學資料刊行會라 한 것은 편의상 붙인 명칭이라 함. 靑冥 先生을 1900年 6月 5日 德壽宮 옆의 先生의 사무실에서 만났던 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90年 6月 6日 淸澤 識” 청명(靑溟) 임창순(任昌淳) 선생님의 전언이 담긴 이 메모에 따르면, 민속학본을 간행한 사람은 김영우(金榮雨)씨이며 민속학본에 실린 11종의 자료는 김영우씨 본인이 수집한 것과 신재영(申在永)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민속학자료간행회’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민속학본의 판권지에는 비매품으로 단기 4291년(1958)에 한정판 200부 발행되었다고 적혀있다.

어 있다. 따라서 고문헌이라기보다는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만든 자료집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다만 민속학본에 11종의 패설집⁷⁾이 집대성 되어 있기에 당시에는 이 자료가 ‘고금소총’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⁸⁾

세 번째로, 고문헌 영인본으로 인해 혼선이 생기기도 한다. 1981년에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編), 『한국문헌설화전집(韓國文獻說話全集)』 제7권이 대학사에서 영인·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서울대본 『파수록(罷睡錄)』, 고려대본 『촌담해이』·『어면순』·『속어면순』, 일본 금서문고본(今西文庫本) 『동국골계전(東國滑稽傳)』, 『홍만종전집』본(손진태 활자본을 영인한 것) 『명엽지해(茗葉志諧)』가 영인 수록되어 있다.⁹⁾ 그런데 『한국문헌설화전집』에 실린 고려대본 『촌담해이』·『어면순』·『속어면순』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개별 자료가 아니라 이 세 자료가 표제 없이 합철(合綴)된 자료이다. 고려대본의 경우 표제만 없을 뿐 작품의 구성 및 체제는 가람본과 동일하다.

그런데 근자에 홍만종의 『부부고(覆瓿藁)』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주목하게 된다.¹⁰⁾ 김영호 교수가 보고한 『부부고』에는 『속고금소총서(續古今笑叢序)』도 실려 있다고 한다.¹¹⁾ 본고에서는 해당 자료의 발견으로 그동안 혼선을 일으켰던 『고금소총』의 저자와 자료의 존재 양상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7) 민속학본에는 11종 총 821화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개별 패설집은 다음과 같다.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145화, 『어면순(禦眠桶)』 83화, 『속어면순(續禦眠桶)』 32화, 『촌담해이(村談解頤)』 11화, 『명엽지해(茗葉志諧)』 79화, 『파수록(罷睡錄)』 63화, 『어수신화(禦睡新話)』 127화, 『진담록(陳談錄)』 49화, 『성수패설(醒睡稗說)』 80화, 『기문(奇聞)』 66화, 『교수잡사(攪睡雜史)』 86화.

8) ‘고금소총’이라는 서명이 민속학본을 가리키는 세대에 대해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는 1974년 10월에 발표한 『洪萬宗의 著述과 그 生涯』(大谷森繁, 『朝鮮後期 小說讀者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5, 139~163면에 부록으로 번역·재수록)에서 ‘극히 最近의 呼稱’(155면 각주)이라 언급한 바 있다.

9) 『한국문헌설화전집』 제7권에 영인된 자료들을 저본으로 柴貴善·柳和秀·李月英 譯註, 『古今笑叢』, 한국문화사, 1998에 출간되었다. 해당 책은 『동국골계전』·『촌담해이』·『어면순』·『속어면순』·『명엽지해』·『파수록』 순으로 국역하고 각 작품 뒤에 원문을 활자화하여 입력하였다.

10) 金映鎬, 『玄默子 洪萬宗의 文集『覆瓿藁』에 관하여 - 新發見『覆瓿藁』의 體制와 內容을 中心으로』, 『溫知論叢』 제19집, 2008; 『玄默子 洪萬宗의 『靑丘永言』 編纂에 관하여 - 新發見 洪萬宗 著述『覆瓿藁』의 『靑丘永言序』 및 『梨園新譜序』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제61집, 2008; 『玄默子 洪萬宗의 新發見 著述에 관하여 - 洪만종 文集『부부고』의 著者書 序文을 中心으로』, 『溫知論叢』 제22집, 2009.

11) 金映鎬, 위의 논문, 2009, 340~343면.

II. 「속고금소총서」의 발견

홍만종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속고금소총』에 대해서는 『부부고』의 발견자 김영호 교수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다.¹²⁾ 다만 전문을 번역하지는 않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다시 전문 번역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객이 현묵자(玄默子)를 나무라며 말하였다. “내 일찍이 수성(愁城) 아래에 병사를 주둔시켰으나 ○묵(○墨)은 퇴각하고 환백(歡伯: 술)도 공을 세우지 못했지요. 근자에 듣자하니 그대가 우리 동국(東國)의 쇠설(瑣說)들을 모아 『○○소총(○笑叢)』을 편찬하였는데, 참으로 파수(破愁)의 선봉이라고 합디다. 곧 구하여 시험해보니 과연 수성의 성주로 하여금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멈추게 하며 마침내 견고한 곳에 쳐들어가 진영을 함락시킨 업적을 거두었으니 그 공이 크다 하겠습디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을 활짝 펴고 환하게 웃게 하여 근심을 잊게 만드는 것은 남너 교환(交驩)의 이야기나 여항의 비속한 이야기만한 것이 없음에도 그대는 모두 산삭(刪削)하여 신지 않았던데 왜 그런 것이오? 『시경(詩經)』 변풍(變風)에는 참으로 음란하고 속된 내용이 많음에도 성인(聖人)께서 그것을 취하셨고, 유종원(柳宗元)은 「적룡설(譎龍說)」과 「하간전(河間傳)」을 지어 허황되고 비속한 말을 했으나 선유(先儒)들도 그것을 잘못이라 하지 않았소. 진실로 선한 것은 감발시키는 것이고 악한 것은 또한 잘못을 고치고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러오. 그대는 어찌하여 유독 이들을 끌어내고 배척한단 말입니까?” 현묵자는 웃으며, “그대의 말이 옳소.”라고 답했다. 곧장 산삭하여 버려둔 것들을 다시 주워 모아서 한 편을 만들고 또 평소 기록한 바 『명엽지해(茗葉志諧)』를 덧붙여 이름하기를 『속고금소총(續古今笑叢)』이라 하였다. 비록 세상을 교화시키는 일에 보탬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세월을 보내고 시름과 번민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客有難於玄默子者曰: “余嘗頓兵於愁城之下, 而○墨卒屢却, 歡伯無功. 近聞, 子蒐集我東瑣說纂『○○笑叢』, 眞破愁之選鋒也. 乃求而試之, 果使愁城之主偃旗息鼓, 而竟收衝堅陷陣之績, 其功茂矣. 然而令人開顏發粲娓娓而忘愁者, 莫若男女陰陽之說·閭巷鄙俗之談, 而子皆刪而不錄, 何也? 周詩變風, 固多淫佚悖亂之辭, 而聖人取之, 柳子作『譎龍說』·『河間傳』, 語涉誕污, 而先儒未嘗病之. 誠以善者足以感發, 而惡者亦足以懲創故也. 子何獨斥絕若是哉?” 玄默子笑曰: “子之言得矣.” 迺復撿拾刪棄, 裒成一編, 且附以平日所記『茗葉志諧』, 名之曰: 『續古今笑叢』. 雖

12) 金暎鎬, 위의 논문, 같은 면 참고.

未必有補於世教, 亦庶幾消居諸, 而拔愁悶云.)¹³⁾

우선 “○” 표시된 부분은 서작으로 결자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翰’이고 두 번째는 ‘古今’일 것이다. 후자는 ‘고금소총’에 대한 서문이니 마땅히 ‘고금’이 들어가야 마땅할 것이고 전자도 ‘한묵’(翰墨)이 되어야 뜻이 통하기 때문이다. 근심이나 걱정, 시름 등을 ‘성’(城)에 비유하는 것은 임제(林梯)의 『수성지(愁城志)』에서 비롯된 클리셰이고, 홍만종도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패러디했으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 결자는 ‘翰’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수성’, ‘한묵’, ‘환백’은 모두 『수성지』에서 활용한 비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자 역시 임제의 『수성지』를 의식하면서 서두를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홍만종이 편찬한 『속고금소총』과 『명염지해』가 패설을 모은 것에 불과하나 이처럼 패설이라도 모아야 하도록 편찬자를 근심과 시름에 놓이게 한 사회적 현실이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점이기도 하다.

홍만종이 이미 『고금소총』으로 근심과 걱정을 잊게 만들었음에도 객이 현목자를 나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객이 말한바 “남녀 교환(交驩)의 이야기”나 “여항의 비속한 이야기”가 홍만종이 편집한 『고금소총』에는 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객이 말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우스운 이야기’라는 의미에서의 소화(笑話)를 넘어서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객이 말한 이야기는 곧 성적(性的)으로 적나라한 패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경(詩經)』 변풍(變風)의 음란하고 속됨은 상론할 필요 없이 남녀의 야합 등 성적인 것을 가리킨다. 유종원(柳宗元)의 『적룡설(謫龍說)』은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아 하강한 용녀(龍女)를 청년들이 친압하려 하였으나 용녀가 거부하고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이고 『하간전(河間傳)』은 절개를 지키던 한 여인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견잡을 수 없이 타락한다는 내용이다. 『적룡설』은 소품적(小品的) 작품이라 저간의 사정이 자세하지 않으나 『하간전』의 경우 적나라한 성적 문란함을 담고 있는바 객이 홍만종에게 요구하는 이야기 역시 『하간전』에 버금가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13) 『續古今笑叢書』(金峽鏡, 『女默子 洪萬宗의 新發見 著述에 관하여 - 홍만종 文集 『부부고』의 諸著書 序文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제22집, 2009, 352~353면 재인용).

현목자는 객의 요청에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 동안 산삭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모아 『속고금소총』을 만들고 『명엽지해』를 덧붙였다고 한다. 『속고금소총서』가 정말로 홍만종의 저작이라면 『고금소총』-『속고금소총』-『명엽지해』는 모두 홍만종의 저작으로 실재했던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정용수는 추론과 논증을 통해 “홍만종은 『고금소총』을 편찬하였으나 『속고금소총』을 편찬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¹⁴⁾ 이 주장은 1998년 출간된 정용수의 동양문고본 『고금소총·명엽지해』의 국역 해제에서도 이어진다.¹⁵⁾ 한편 김준형은 정용수가 추정한 것을 받아들여 “『속고금소총』은 『명엽지해』를 달리 이른 것이지, 별도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 과정에서 가람본은 간단히 언급되거나 생략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

『속고금소총서』을 신뢰하더라도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을 홍만종이 애초에 편찬한 『고금소총』에 가깝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큰 이견은 없다. 물론 홍만종이 애초에 편찬한 그 모습 그대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명엽지해』의 경우 현목자 홍만종의 서문과 창해노인 허격의 발문이 붙어 있지만 『고금소총』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¹⁷⁾ 선행연구에서 간혹 『명엽지해』를 『속고금소총』의 이칭(異稱)일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속고금소총서』를 통해 볼 때 최소한 『속고금소총』과 『명엽지해』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아울러 『속고금소총』의 경우 그 모습을 정확하게 재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람본 『고금소총』이 보여주는 면모를 간직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글자로 제목을 붙이고, 사평(史評)을 다는 투식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동양문고본 『고금소총』-가람본 『고금소총』-동양문고본 『명엽지해』의 일관성이 간취되기 때문이다.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는 홍만종이 『명엽지해』 외에도 『고금소총』과 『속고금소총』이라는 두 소화집(笑話集)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면서 마에마 교오사쿠(前間恭作)의 기록을 인용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 오오타니

14) 정용수, 앞의 논문, 1996, 2~7면.

15) 정용수, 앞의 책, 1998, 1~8면.

16) 김준형, 앞의 책, 2004, 115~133면.

17) 지금은 『기문총화』에만 남아있는 『부안기계생(扶安妓桂生)』에 홍만종의 『속고금소총』에서 옮겨 왔다는 기록은 존재하지만 현전하는 『고금소총』에는 『부안기계생』이 보이지 않는다.

의 견해에 반박을 시도한 바 있지만 『속고금소총서』의 발견으로 마에마의 기록과 오오타니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생겼다.

오오타니는 마에마의 기록에 의거하여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의 편저자를 홍만중으로 간주하였고 『속고금소총』의 경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거나 현재로서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마에마가 『終南叢志 抄出 第十七條』라고 언급한 것은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에 실린 제41화 『기의재행(妓疑再行)』이다.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에 전재된 『종남총지(終南叢志)』로 보면 17번째 일화이다. 반면 『金得臣의 原書』라고 언급한 내용은 현전하는 『종남총지』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기문총화』에 “玄默子 洪萬宗 字于海 少時”로 시작하는 “98字의 文”이 실려 있어서 저간의 사정이 확인된다. 『기문총화』의 경우 『종남총지』보다 후대에 편찬된 자료이기에 『기문총화』의 편저자가 착오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기문총화』보다 동양문고본 『고금소총』 소수(所收) 『종남총지』의 기록을 더 신뢰한다면 마땅히 해당 구절의 “余”는 『종남총지』의 원저자인 김득신을 가리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명엽지해』의 경우 홍만중의 저작이라 할 수 있으나 『고금소총』의 경우 홍만중은 편자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 속 “余”는 홍만중이 아닌 원저자를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만약 보다 적극적으로 편자가 개입했다면 “余”를 “金得臣”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가람본이나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의 경우 편찬자가 원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余”가 김득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대해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¹⁸⁾

오오타니가 말한 『기문총화』의 기록은 현재로서도 확인되는 구절이기에 『속고금소총』이라는 저작물이 홍만중의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방증된다.¹⁹⁾

18) “此書 撰者の 이름은 없어도 洪萬宗의 編錄임은 의심할 나위 없다. 終南叢志 抄出 第十七條 妓疑 再行이라 題한 一話는 洪萬宗에 관한 것이다. 金得臣의 原書에는 「玄默子 洪萬宗 字于海 少時」라고 시작해서, 上節에 그 成川 客遊의 일을 記述하고, 下節에 이 再行의 說話를 실었다. 本書에는 그 下節만을 笑話로서 移錄한 것이지만, 「余嘗與晚州洪元九遊上黨菩薩寺」로 시작해서, 大體로 終南叢志에 依據하였으나 이것을 敷衍하여 98字의 文을 184자로 고쳐 썼다.”(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洪萬宗의 著述과 그 生涯』, 『朝鮮學報』, 1974.10.[大谷森繁, 『朝鮮後期 小說讀者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5, 139~163면에 부록으로 번역·재수록. 해당 인용면수는 15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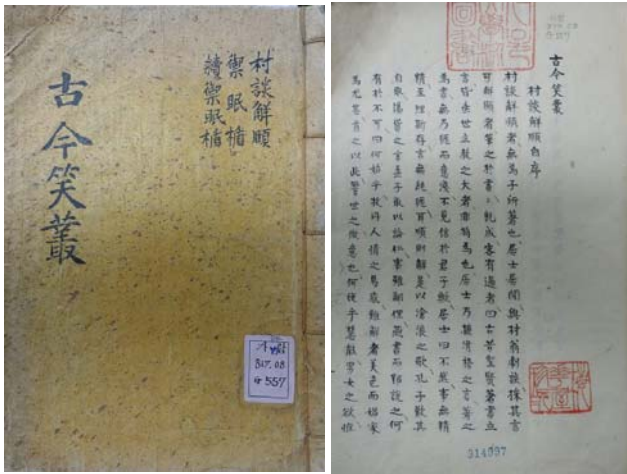
19) “萬宗은 此書(『古今笑叢』-筆者註)에 이어 續古今笑叢의 撰이 있다. 世上에 널리 알려졌던 모양으로, 別出 紀聞叢話 속에, 이 책에 抄錄한 扶安妓桂生의 一話가 있고, 末尾 出典으로서 「續古今笑叢洪奉事萬宗著」라 割書하고 있다.”(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위의 논문 같은 면)

아울러 앞서 논한 『속고금소총서』를 통해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사실도 증명되는 것이다. 물론 『부안기계생(扶安妓桂生)』의 실제 내용이 홍만종의 행적과 부합되지 않고, 현전하는 『고금소총』과 『명엽지해』에는 해당 일화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문총화』가 편찬될 당시 전해지던 원본 『속고금소총』에는 해당 일화가 전제되어 있었고 『기문총화』의 편찬자가 해당 기록을 홍만종의 개인적 체험으로 착오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속고금소총』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III. 가람본과 동양문고본의 관계

1. 가람본 『고금소총』

가람본 『고금소총』에는 『촌담해이』, 『어면순』, 『속어면순』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으며, 자서(自序) 1편, 서(序) 1편, 발(跋) 2편이 있으며, 본문에는 총 58편의 일화(逸話)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 첫 장은 “古今笑叢”이라는 제명(題名) 아래 곧바로 무위자(無爲子: 姜希孟의 호)의 『촌담해이자서(村談解頤自序)』로 시작된다. 『촌담해이』는 1~6장에 걸쳐 필사되어 있으며 『촌담해이자서』 다음에 『모란탈재(牡丹奪財)』 등 총 4편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각 편은 4글자로 된 제목이 붙어있고 말미(末尾)에는 “태사공왈”(太史公曰)로 시작되는 평(評)이 달려있다. 다음의 『어면순』은 7~23장에 걸쳐 필사되어 있다. “禦眠楯”이라는 제명 아래 “醉隱 宋世琳 撰”이라 적혀있으며, 송세형(宋世珩, 1492~1553)의 『어면순서(禦眠楯序)』로 시작하여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의 『어면순발(禦眠楯跋)』로 끝난다. 본문에는 『임랑돈독(林郎敦篤)』 등 총 22편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각 편은 3~4글자로 된 제목으로 시작되며 『임랑돈독』부터 『주장군전(朱將軍傳)』까지 7편의 말미에만 “사신왈”(史臣曰)로 시작되는 평이 붙어있다. 마지막으로 『속어면순』은 『어면순』에 바로 이어서 필사되어 있는데 “續禦眠楯”이라는 제명 하에 “雙泉 成汝學 撰”이라 적혀있고 본문의 말미에 홍서봉(洪瑞鳳, 1572~1645)의 『속어면순발(續禦眠楯跋)』이 있다. 본문에는 『촌녀연구(村女聯句)』 등 총 32편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각 편은 4글자로 된 제목으로 시작되며 『촌녀연구』부터 『송구증소』



『가람본 『고금소총』 표지와 본문』

(誦句增笑)까지 17편에만 “史臣曰”로 시작되는 평이 붙어있다.

『가람 日記』에는 이병기 선생이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고금소총』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짧게 언급된 바 있다.

1/10(화) 새벽에 권상로(權相老)를 찾아보다. 오후 0시 30분에 방송곡에 가다. 저녁에 정계섭(鄭啓燮) 씨가 와서 하곡(霞谷)의 『양명초(陽明抄)』 9책을 차거(借去). 『고금소총(古今笑叢)』을 베껴 오다. 2원을 주다.²⁰⁾

가람 선생이 적어 놓은 1933년(癸酉) 1월 10일의 기록을 통해, 규장각에 소장된 가람본 『고금소총』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금소총』이며 해당 자료의 필사년(筆寫年) 역시 1933년임이 확인된다. 『고금소총』을 베껴 온 정계섭(1876~?)²¹⁾은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7대손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일하면서 고전적 정리에 중사하는 한편 가문의 전적을 정리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영일정씨파보(迎日鄭氏派譜)』를 편찬하는

20) 李秉岐 著, 鄭炳昱·崔勝範 編, 『가람 日記(Ⅱ)』, 新丘文化社, 1976, 421면.

21) 『上之卽卅二十九年辛卯慶科增廣司馬榜目』에 따르면 정계섭의 생년은 1876년(丙子, 고종 13)으로 1891년(辛卯, 고종 28) 증광시(增廣試)에서 3등 11위를 한 것으로 나온다.

한편 『하곡집(霞谷集)』의 5차 편찬을 주도했다고 한다.²²⁾ 정계섭은 『고금소총』 이외에 『해동문헌총록』, 『삼한귀감』을 필사하여 가람 선생에게 건넨 바 있다.²³⁾



「가람본 『명엽지해』 표지와 본문」

한편 규장각에는 가람본 『명엽지해』가 소장되어 있다. 『가람日記』에는 가람 선생이 『명엽지해』를 얻게 된 경위가 간략하게 나와 있다.

1/29(일) 맑다. 띄 풀린다. 이능화(李能和) 어른을 가 보다. 문흥회(文興會)를 가서 애류(崖溜)를 만나보고 매헌(梅軒)을 찾아보고 수당(壽堂)을 찾았다 못 만나보다. 김기중(金琪中)씨를 가 보다. 이극로(李克魯) 군이 오다. 임병철(林炳哲) 군을 보다. 이은상(李殷相) 군이 『명엽지해(冥葉志諧)』를 보냈다.²⁴⁾

위의 1933년 1월 29일 기록을 통해, 『고금소총』을 입수한 시기와 비슷한

22) 김수진, 「정제두 사상투쟁의 기록 - 가람문고본 『陽明抄』에 대한 탐색」, 『韓國漢文學研究』 제67집, 2017, 229~230면.

23) 윤지아, 「『가람일기』에 나타난 古文獻 筆寫와 필사자의 존재양상 연구」, 『고전과 해석』 제24집, 2018, 60~61면.

24) 李秉岐 著, 앞의 책, 423면.

때에 『명엽지해』도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람 선생에게 『명엽지해』를 보내준 이은상(1903~1982)은 호가 노산(鷺山)으로 시조 시인이자 사학자였는데 가람 선생과 친분이 있었다.

『명엽지해』는 기존의 패설을 모은 것이 아니라 홍만종이 들은 이야기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홍만종이 지은 것이라 해도 무방하며 이는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에 합철된 형태로 전하는 동양문고본 『명엽지해』라 할 수 있다. 가람본 『명엽지해』 역시 동양문고본 『명엽지해』와 구성이 동일하다. 아직 『가람日記』 완역본이 출간되지 않았기에 관련된 자료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록에 따르면 가람본 『명엽지해』는 가람 선생이 이상은 선생에게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그 내용과 편제의 경우 목차와 인용 서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에마 료오사쿠(前間恭作)의 자료를 베낀 손진태 선생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추정컨대 손진태 선생의 필사본을 깨끗하게 정서한 결과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가람日記』에 따르면, 가람은 1933년 김화진(金和鎭)에게 『해동이적』, 김연익(金然翊)에게 『소화시평』을 필사시킨 바 있다.²⁵⁾ 『해동이적』, 『소화시평』, 『명엽지해』는 모두 홍만종의 편찬서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930년대 중반에 누군가가 홍만종의 저작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었고 가람 선생은 이들 자료의 소장처를 찾아 여러 필사자들을 시켜 필사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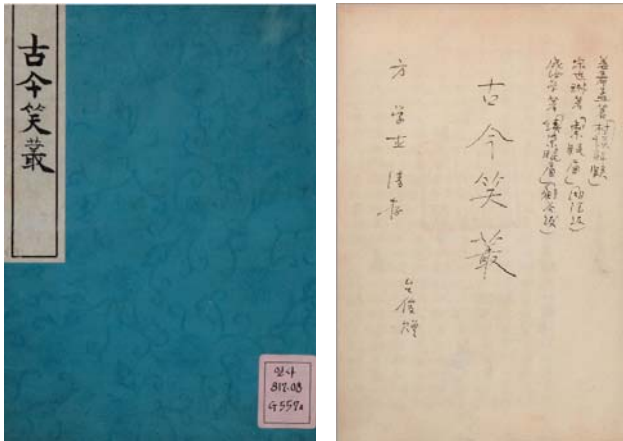
한편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의 ‘제3편 전기소설과 한글발생기 제2절 『골계전』과 『고금소총』에서 『고금소총』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²⁷⁾ 그런데 서울대

25) 윤지아, 위의 논문, 76면 참고.

26) 가람 이병기 선생의 고문헌 보존과 필사 작업의 경과 및 의의에 대해서는 이민희, 『서지학자로서의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연구 -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 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7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참고.

27) “『골계전』은 사가(四佳) 서거정이 당시 골계자류(滑稽者流)의 일사(逸事)를 수집하여 기록한 것이며 『고금소총』은 송인(宋寅)의 저술이었다고 전하나 확실치 아니하다. 내가 본 『고금소총』은 강진산(姜晋山)의 『촌담해이』 수조(數條)와 송취은(宋淸隱)의 『어면순(禦眠楯)』 십수 조와 성쌍천(成雙泉)의 『속(續)어면순』 십여 조로 된 것이었는데 이는 조선 최초의 외담집(猥談集)이었다. 그런데 일본 전간공작(前間恭作)씨의 소장으로 있는 『고금소총』은 손진태씨의 소개에 의하면 『어우야담』·『하담기문(荷談記聞)』·『잠곡필담(潛谷筆談)』·『종남총지(終南叢志)』·『천예록(天倪錄)』 등에서 인출된 54조(條)의 야담소설집이라고 한 것을 보아 동명이서(同名異書)의 탄 책인 듯하다. 그 부록으로 있었다는 『명엽지해(莫葉志諧)』는 현묵자(玄默子) 홍만종(洪萬宗)의 찬(撰)으로서 76조로 된 외담집(猥談集)이니 『어면순』의 야유이다.”(金台俊 著, 朴

일사본 『고금소총』에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어 주목된다. 서울대 일사본 『고금소총』은 등사본으로 가람본 『고금소총』과 그 편차가 동일하다. 속표지에는 김태준이 방중현에게 기증했다는 메모가 있다.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자신이 보았다 언급한 『고금소총』은 일사본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사본 『고금소총』 표지와 속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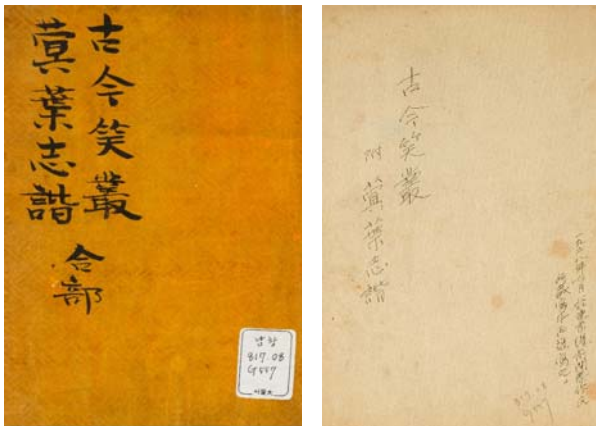
속표지에 인용서목을 적고 표제를 적은 후 “方學士傳存”, “台俊贈”이라 적은 것이 확인된다. 인용서목을 표제 앞에 적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나 이는 가람본 『고금소총』 표지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일사본과 가람본이 같은 책을 베낀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자료의 구성과 체제는 가람본 『고금소총』과 동일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1930년대 초에는 한국 내에는 가람본 계열의 『고금소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며 가람 선생과 일사 선생 모두 ‘고금소총’이라 하면 위에서 언급된 자료를 언급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2. 동양문고본 『고금소총』과 『명엽지해』

반면 “고금소총”을 표제로 하는 다른 계열의 자료로 일본 동양문고본이 있다. 동양문고본은 원래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의 재산루장본(在山樓藏本)을 가리키며 지금은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동양문고본은 『고금소총』과 『명엽지해』의 합철본으로 수록된 일화와 인용 서목이 가람본과는 전혀 다르다.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은 홍만중(洪萬宗, 1643~1725)이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 김시양(金時讓, 1581~1643)의 『하담기문(荷潭記聞)』, 김육(金堉, 1580~1658)의 『잠곡필담(潛谷筆談)』,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의 『종남총지(終南叢志)』에서 몇 편씩 뽑아 약간의 변개를 가하여 전제한 것이다.²⁸⁾

한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유인본(油印本) 『고금소총』(청구기호: 남창 817.08 G557)이 소장되어 있는데 표지에는 “古今笑叢/芟葉志諧 合部”라 되어 있고, 속표지에는 “一九二八年六月於東京得前間恭作氏/所藏寫本而復寫之.”라는 기록과 “古今笑叢/附 芟葉志諧”라는 표제가 적혀있다. 또한 본문 첫 장에 “孫晉泰藏書”라고 새겨진 장서인이 찍혀 있다.



남창본 『고금소총』 표지와 속표지

28) 동양문고 소장 『고금소총』과 『명엽지해』는 정용수, 『고금소총·명엽지해』, 국학자료원, 1998에 국역되었고 원본은 해당 번역서 뒤에 영인되었다.

해당 자료는 남창(南滄) 손진태(孫晋泰, 1900~?)의 것으로 손진태 선생이 1928년 6월 일본 동경에서 마에마 코사쿠의 소장 필사본을 얻어 베낀 자료임이 확인된다.²⁹⁾ 다만 마에마 코사쿠의 동양문고본에는 목차가 없는데 남창본에는 목차가 적혀 있다. 남창본 목차에 “私製”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는 원 자료에는 없지만 남창 선생 스스로 적어 삽입한 목차라는 뜻일 것이다.³⁰⁾ 목차 다음에는 “『於于野談』、宣祖時人柳夢寅所著、『荷潭記聞』、宣祖末人金時讓所著、『潛谷筆譚』、顯宗時人金埴所著、『終南叢志』、顯宗時人金得臣所著、『天倪錄』、”이라 적어두어 출전과 작자를 별도로 밝혀 놓았다. 참고로 『손진태 전집』에 실린 활자본 『명엽지해』는 손진태 선생이 동양문고본 『명엽지해』를 베낀 것을 토대로 활자화한 것이다.

3. 『고금소총』-『속고금소총』-『명엽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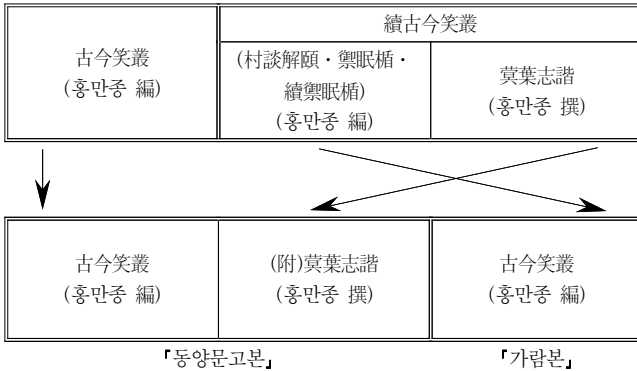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고금소총’을 표제로 한 이본들의 계통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 ① 가람본(+고려대본+일사 유인본)
- ② 동양문고본(+남창 유인본)
- ③ 조선고금소총(정음사, 1947)
- ④ 민속학본(1958)

여기서 ③과 ④는 근대 편집본이니 고문헌으로 볼 수 없고 원전이라 할 수도 없다. 반면 ① 가람본과 ② 동양문고본은 전대 문인들의 패설을 선별하여 그대로 전재했다는 점, 4글자로 제목을 붙였다는 점 등이 편찬의 형식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내용 면에 있어서는 가람본과 동양문고본은 전혀 다르다. 가람본과 동양문고본이 표제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양문고본의 경우 ‘우스운 이야기’로 볼 수 있는 반면 가람본의 경우 남녀의 성적 결합과 관련한 이야기만 모은 것이다. 『명엽지해』의 경우 소화에 성소화가 약간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계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 기출간 된 『손진태 전집』에는 『명엽지해』 활자본만 영인된 바 있다.

30) 현재 영인되어 있는 동양문고본에는 목차가 보이지 않는다.



새로 발견된 『속고금소총서』에 의해 『속고금소총』이 실재하는 책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속고금소총』에 실린 이야기들은 유종원의 『하간전』을 방불할 남녀의 성적 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속고금소총』은 홍만중이 산삭(刪削)했던 노골적인 남녀의 성적 결합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시 전재한 것이다. 홍만중이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직접 기록한 『명엽지해』의 경우 홍만중이 직접 찬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속고금소총’이라는 표제나 권수제를 가진 책은 아직 발견된 바 없다. 다만 『속고금소총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과거 문인들이 기록한 필기로 남녀의 성적 결합이 주조를 이루는 작품집이 『속고금소총』이라는 점은 확인된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가람본이 『속고금소총』이라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속고금소총』에 실렸던 작품의 일단과 그들이 보여주는 정서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임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고금소총』, 『속고금소총』, 『명엽지해』의 수록 작품의 일단을 확인해봄으로써 각 패설집의 성격을 파악해보도록 하자.

- ① 글 모르는 한 무부(武夫)가 관서(關西)의 사또가 되었다. 평양 연광정(연광정에 올라 경치를 감상하다 현판에 쓰인 운자 중에 ‘송군남포동비가(送君南浦動悲歌)라는 시구를 보게 되었다. 속으로 ‘동비가(動悲歌)라는 세 글자를 이룬난 기생이라 생각했다. 돌아보며 물었다. “여기 기생 중에 ‘동비가’라는 이름을 쓰는 자가 누구냐?” 한 기생이 웃음을 머금고 대답하였다. “그것은 소인의 할머니 할 자랍니다.” 듣는 자들이 포복절도하였다.³¹⁾

② (….)오래지 않아 장군이 분기탱천(憤氣撐天)하여 투구마저 벗어버리고 몸을 날려 관문(關門)을 두들겨 열어젖혀 세 번 나아가고 세 번 물러났다. 한 번은 옥장(玉帳)의 술법에 의지하여 앉아서 치고 찢렸고 용도(龍韜)의 술법에도 꼭 맞게 종횡으로 함괘(闔穽)를 드나들어 향하는 바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관부인(灌夫人)은 이미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형세가 감당하기 어려워졌음을 알고 백수진인(白水真人)에게 구원을 청했다. 진인은 “장군은 성격이 불같이 급하여 나아감에 예리하고 물러남에 재빠르니 포위하여 물을 갖다 대는 것만큼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부인은 그 계책대로 물걸을 일으켜 장군을 침수시켰다. 장군은 머리를 적시고 몸에 물기를 문헌 채 구레나룻을 바짝 세워 의기양양하게 죽을힘을 다해 내지(內地)를 유린하고는 몹시 지쳐서 피를 토하고는 창을 돌려 돌아갔다.(….)³²⁾

③ (….)이때부터 저물녘에 들어가 새벽녘에 나오며 애정이 매우 돈독해졌다. 하루는 기녀가 방백에게 “제 집이 홍살문(紅簾門) 바깥에 있사오니 한 번 오셔서 곡진한 정을 표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하였다. 방백이 그리하겠다고 허락하였다. 밤이 되자 더불어 몰래 가서는 옷을 벗고 같이 누웠다. 조금 있자하니 문 바깥에 한 사내가 크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내 너를 박하게 대하지 않았거늘 이제 네가 나를 배반하다니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방백은 진퇴유곡이라 어찌할 줄 몰랐다. 기녀가 말했다. “저 놈은 포악한 자이니 사또께서는 잠시 장롱 안으로 들어가 피하십시오.” (….)목사가 장롱을 열라고 명하니 다만 벌거벗은 한 남자가 있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살펴보니 바로 그 방백이었다. 하리(下吏)들이 한 목소리로 고하였다. “사또께서 장롱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관아에서는 크게 경악하였고 이를 들은 자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다.³³⁾

31) 有一武夫不文者倅關西。到平壤登練光亭玩景，見板上韻有送君南浦動悲歌之句，意謂動悲歌三字爲名妓也。顧問曰：“此妓中，有動悲歌爲名者誰？”一妓含笑而對曰：“此是小的祖母名也。”聞者絕倒。(『見詩認名』，『古今笑叢』所收『終南叢志』)

32) 俄而將軍怒氣奮發，免胄騰身，打開關門，三進三奔。一依玉帳之術，坐作擊刺，必合龍韜之法，縱橫闔穽，所向無前。灌夫人邦本既搖，勢難抵當，請救於白水真人。真人曰：“將軍性急如火，進銳退速，莫如圍而灌之。”夫人如其計，激水浸之。將軍濡首露體，掀髯自得，竭盡死力，蹂躪內地，勞甚嘔血，倒戈而還。(『灌夫人傳』，『古今笑叢』所收『續樂眠橋』)

33) 自此昏入晨出，情愛甚篤。一日，妓謂方伯曰：“我家在紅簾門外，寧不一往以示繾綣？”方伯許之。夜與潛往，解衣共枕。俄聞門外有一漢，大喝曰：“我之裝汝非薄，而今汝背我，決不可相貸！”方伯進退維谷罔知所爲。妓曰：“此漢強暴，願使道暫入衾籠以避之。”(….)牧使命開其籠，但有裸一男子，兩手扶面而伏。衆聚視之，乃其方伯。下吏齊聲告曰：“使道入籠矣。”府中大愕，聞者掩口。(『妓籠藏伯』，『莫葉志譜』)

①은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에 실린 『중남총지』 가운데 한 작품이다. ②는 가람본 『고금소총』에 실린 『관부인전』의 일부이고, ③은 『명엽지해』의 첫 번째 작품의 일부이다.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은 가람본과 달리 남녀의 성적 관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패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주로 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리석거나 무식한 자가 해프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웃음이 유발된다. 물론 기생이나 음탕한 부인이 등장하기는 하나 관계의 상세한 묘사보다 우스운 상황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소화 위주의 편집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가람본 『고금소총』은 거의 예외 없이 노골적인 남녀의 성적 관계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를 제시하는 방법 역시 매우 노골적이라 할 수 있다. 동양문고본이 전대 필기류 패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듯, 가람본 역시 전대 필기류를 전재하는 방식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건에는 웃음도 웃음이지만 남녀의 성적 관계가 그 중심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성소화 중심의 편집본이라 할 수 있다. 가람본 소재 『어면순』에는 남성의 성기(性器)를 의인화하여 입전한 「주장군전(朱將軍傳)」이 실려있고 『속어면순』에는 『어면순』의 속편이라는 그 성격에 맞게 여성의 성기를 의인화하여 입전한 ② 「관부인전(灌夫人傳)」이 실려있다. 「관부인전」은 신체의 각 부위를 은유하고 있다. 심성가전(心性假傳)의 전통 하에 마음은 ‘천군(天君)으로 의인화한 한편 배꼽은 ‘제중서(臍中書), 항문은 ‘황문랑(黃門郎), 음모(陰毛)는 모참군(毛參軍) 등으로 제시된다. ②는 남녀의 성적 결합의 과정을 국가 간 전쟁 공방(攻防)으로 은유하였다. 가람본의 여러 작품들이 웃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웃음의 원인이 어리석음이나 무식이 아니라 남녀의 음란함이라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③의 『명엽지해』에서는 ①, ②와 달리 홍만종의 작가 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⁴⁾ 『명엽지해』는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홍만종의 변개 작업을 거치며 이야기가 상당 부분 ‘굴절’된다. 홍만종은 이러한 굴절의 방식을 통해 세태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홍만종은 『고금소총』과 『속고금소총』을 만드는 과정에서

34) 『명엽지해』에 보이는 홍만종의 작가의식에 대해서는 황소령, 「『명엽지해』 연구 -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참고.

패설의 형식을 안착시켰다. ㉠ 서발문의 구비, ㉡ 4글자로 된 제목의 부여, ㉢ 사평(史評)의 부연 등이 그것이다. 홍만중은 『고금소총』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산삭했던 남녀의 성적 관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들로 『속고금소총』을 편집하면서 패설집의 구성과 형식을 체계화시켰던 것이다.

③은 『명엽지해』의 첫 번째 일화로 해당 패설집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기생에게 속아 꺾이나 농에 숨었다가 벌거벗은 채로 대중들에게 노출되던 이야기는 패설집에 흔히 보이는 줄거리로 벌거벗은 민낯을 ‘폭로’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③에서 홍만중은 양반의 겉옷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벗기고 있다. 여기서 기생에게 속아 벌거벗겨진 방백은 원래 원성(原城: 원주) 기생에게 현혹된 벼슬아치들을 탄핵하던 대관(臺官)이었다. 성종(成宗)이 ‘호색(好色)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대관은 ‘참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탄핵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종은 이 대간을 관동(關東)의 방백(方伯)으로 보내면서 원성 목사(牧使)에게 여색으로 그를 시험해보라 했던 것이다. 그 결과 ‘금옥주의자’ 대관이 사실은 색욕을 참지 못하는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폭로된다. 엄숙한 금옥주의자의 민낯이 ‘벌거벗은 몸’과 함께 폭로된 것이다. ‘야사씨(野史氏) 홍만중은 이에 대해, “세간(世間)에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진정[情]과 위선[僞]이다. 평소 도의(道義)를 주장하며 예법에 맞는 거동을 과장하여 명분(名分)과 절의(節義)를 자임하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령 범속한 무리에 섞여 명분과 절의를 자처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또한 반드시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법도 없다”고 말한다.³⁵⁾ 홍만중은, 평소 입으로는 의리와 예절, 명분과 절의 등 윤리적 준칙을 엄정히 지켜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실제 생활세계에서 의리와 예절, 명분과 절의를 실천해야 할 때면 도망쳐버리는 양반 사대부의 위선을 풍자·비판한 것이다.³⁶⁾ 홍만중은 성종의 입을 빌려 ‘색욕(色欲)은 상정(常情)’이라 말하

35) 世間最難知者, 人之情僞也. 其平居也, 談道義飾禮容, 以名節自任者, 不必有其實. 或混於常流, 不以名節自處者, 亦未必無其實也. (『妓籠臧伯』, 『莫葉志諧』)

36) 임형택, 앞의 책, 417면에서 『어면순』은 ‘호색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음예(淫穢)의 표본’으로서 그 저자 성여학은 ‘완세적(玩世的) 기분으로 골계에 몰입’한 것이라 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필기·패설이 이야기 자체로는 골계미를 보여주는 하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편집한 편저자의 의식에는 골계 이상의 강렬한 비판의식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본다.

였는데, 이를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긍정한 것’으로 치부하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진정성(眞情性: authenticity)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③의 방백[=대관]은 양반 사대부의 일원으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하지 못한 자이다. 곧 명분과 실체가 일치하지 못한 이른바 속물주의(俗物主義: snobbism)적 인간인 것이다. 홍만중이 발견하고자 하는 ‘진정’(眞情)은 곧 개인의 욕망이 윤리적 이상과 부합하는 세계에 대한 지향이다.

홍만중은 『명엽지해』의 『자서(自叙)』에서 ‘파한(破閑)에 뜻을 둔 것으로 석현(昔賢)의 ‘신지’(新知)와는 다르다고 말했지만,³⁷⁾ 이는 겸사일 뿐 『명엽지해』를 통해 자신의 ‘신지’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명엽지해』에 발문(跋文)을 써준 허격(許格, 1607~1691)은 『명엽지해발(莫葉志諧跋)』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홍만중과 더불어 낙척불우(落拓不遇)한 사람이었다.³⁸⁾ 그런데 그의 행적은 그저 때를 만나지 못한 양반 사대부가 아니다. 창해노인(滄海老人) 허격은 훗날 ‘대명처사(大明處士)로 불린 사람이었다. 그는 1684년에 이제두(李齊杜)·백해명(白海明)과 함께 가평의 한 바위에 명나라 의종(毅宗)의 ‘사무사(思無邪) 글씨를 본 뜨고, 선조(宣祖)의 ‘만절 필동재조번방(萬折必東再造藩邦)과 효종(孝宗)의 ‘일모도원지통채심(日暮途遠至痛在心)을 송시열(宋時烈)의 글씨로 받아 바위에 새긴 후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侯)의 전서(篆書)를 받아 ‘조종암(朝宗巖)이라고 새겼다. 그는 이후 조종암 앞에서 명나라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의 제사를 지내고 북벌을 추진한 효종을 추모했다고 한다. 이처럼 송명배척(崇明排淸)의 의식을 강하게 표출했던 허격이 단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홍만중에게 『명엽지해』 발문을 써준 것은 아닐 것이다. 홍만중과 허격이 낙척불우하게 된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다. 이들은 망해버린 명(明)나라, 후금(後金)에 항복한 조선(朝鮮), 당쟁(黨爭)으로 탄핵 당하고 귀양 가야만 하는 ‘사회적 현실’로 인해 낙척불우하게 된 것이다.

허격은 홍만중의 『명엽지해』를 통해,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근심과 걱정을 잠시나마 잊고 웃으며 즐길 수 있었다고 하였다.³⁹⁾ 이처럼 홍만중과 허격의

37) 蓋其本意，雖主於破閑，而其與昔賢詠蕉葉詩旋隨新葉起新知，大遠矣。良堪一嘆(洪萬宗, 『自叙』, 『莫葉志諧』)

38) 余亦落拓而不遇者(許格, 『莫葉志諧跋』, 『莫葉志諧』).

39) 對於海而閱是編，輒能怡然自適，忘了與生俱生之憂，于海之賜大矣(許格, 『莫葉志諧跋』, 『莫

‘웃음’은 음담패설의 말초적 즐거움의 결과물인 것만은 아니다. 아울러 이들의 웃음을 민중(民衆)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망의 분출이라 평가하고 말 수는 없다. 물론 개별 작품들은 ‘민중문학이 출현하지 못한 시기 하층민의 생각과 소리가 생생하게 그려진 문학사적으로 귀중한 측면’이라 평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편집한 편찬자의 의식을 간과할 수는 없다. 『고금소총』 편찬자의 웃음은 좌절한 지식인들의 그것으로 민중적 건강정보보다는 지식인적 ‘퇴폐성’(頹廢性)의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홍만중이 보여준 웃음은 좌절한 지식인들의 ‘데카당스’(décadence)와 연관될 수 있다. 홍만중의 편찬의 식에는 색(色)으로 눈을 어지럽히고 정신을 멍하게 만들어야 할 만큼 힘든 현실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의 웃음, 나아가 가람본 『고금소총』에 보이는 음란한 웃음, 그리고 『명엽지해』에 이르기까지 패설집 속에 구현된 웃음에는 홍만중의 말세(末世)로서의 세계 인식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IV. 결론

일찍이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은 『명엽지해』와 함께 홍만중의 편저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속고금소총』은 곧 『명엽지해』의 다른 명칭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가람본 『고금소총』은 표제가 ‘고금소총’임에도 그저 표제를 가탁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홍만중의 『부부고』와 이 책에 실린 『속고금소총서』가 발견되면서 홍만중이 동양문고본 계열 『고금소총』을 먼저 편찬하고 그 과정에서 산삭했던 성소화류(性笑話類) 패설을 다시 모으고 자신이 직접 기록하고 지은 『명엽지해』를 붙여 『속고금소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현전하는 동양문고본 『고금소총』과 동양문고본 『명엽지해』에는 비록 남녀음양지사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수위가 노골적이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고금소총’이라는 표제를

葉志譜)

40) 필기·패설의 이야기들은 여러 사회계층의 생활경험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전기소설(傳奇小說)의 신비적·낭만적 수법과 전혀 다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편으로는 한문단편을 성립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역사소설에 용해되었다.(임형택, 앞의 책, 418면 참고)

공유하는 다른 계열의 자료로 현전하는 가람본 『고금소총』의 경우 『속고금소총서』에서 말한바 노골적인 음담패설류 성소화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람본 『고금소총』이 『속고금소총』의 작품들 가운데 남녀음양지사를 담은 일련의 작품들이 지닌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라는 것이 본고가 추정하고 주장한 바이다. 물론 가람본 『고금소총』이 곧 『속고금소총』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 패설들 가운데 남녀음양지사만을 모은 가람본 『고금소총』을 『속고금소총』과 연관하여 고려해야만 홍만종의 저작물로서 『고금소총』-『속고금소총』-『명엽지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홍만종은 일련의 저작물을 통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그리고 음란함을 통한 웃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홍만종의 웃음은 파한(破閑)을 위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낙척불우(落拓不遇)한 현실에 대한 세기말적 대응 방식으로서의 웃음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古今笑叢』(규장각 가람본)
『古今笑叢』(일본 동양문고본)
『古今笑叢』(서울대 일사본)
『古今笑叢』(서울대 남창본)
『村談解頤』·『禦眠栢』·『續禦眠栢』(고려대본)
『韓國文獻說話全集』 제7권, 東國大學校 韓國文學研究所 編, 太學社, 1981.
『古今笑叢』 第1輯, 民俗學資料刊行會, 1958.
『古今笑叢』, 柴貴善·柳和秀·李月英 譯註, 한국문화사, 1998.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고금소총·명엽지해』, 정용수, 국학자료원, 1998.

2. 단행본

- 김준형, 『패설문학 연구』, 보고서, 2004.
金台俊 著, 朴熙秉 校注, 『校注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李秉岐 著, 鄭炳昱·崔勝範 編, 『가람 日記』, 新丘文化社, 1976.
임형택, 『李朝前期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視覺』, 創作과 批評社, 1984.

3. 논문

- 金映鎬, 「玄默子 洪萬宗의 文集 『覆瓿藁』에 관하여 - 新發見 『覆瓿藁』의 體制와 內容을 中心으로」, 『溫知論叢』 제19집, 온지학회, 2008, 165~214면.
——, 「玄默子 洪萬宗의 『靑丘永言』 編纂에 관하여 - 新發見 洪萬宗 著述 『覆瓿藁』의 『靑丘永言序』 및 『梨園新譜序』를 中心으로」, 『大東文化研究』 제6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319~347면.
——, 「玄默子 洪萬宗의 新發見 著述에 관하여 - 홍만중 文集 『부부고』의 諸著書 序文을 中心으로」, 『溫知論叢』 제22집, 온지학회, 2009, 321~358면.
김수진, 「정제두 사상투쟁의 기록 - 가람문고본 『陽明抄』에 대한 탐색」, 『韓國漢文學研究』 제67집, 한국한문학회, 2017, 209~250면.
金永垓, 「우리나라 笑話의 史的 展開樣相」, 『紀全女子專門大學論文集』(94年 9月), 기전여자대학, 1994, 1~16면.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洪萬宗의 著述과 그 生涯」, 『朝鮮學報』, 1974.10(大谷森繁, 『朝鮮後期 小說讀者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5, 139~163면에 부록으로 번역·재수록)

- 윤지아, 『『가람일기』에 나타난 古文獻 筆寫와 필사자의 존재양상 연구』, 『고전과 해석』 제24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55~82면.
- 이민희, 『서지학자로서의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연구 -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 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7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93~227면.
- 정용수, 『洪萬宗의 『古今笑叢』考』, 『東洋漢文學研究』 제10집, 1996, 179~204면.
- 황소령, 『『명엽지해』 연구 -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A Study on the *Go-Gŭm-So-Chong*(古今笑叢) in Garam Collections

Kim, Yu-jin

There are two series in *Go-Gŭm-So-Chong*(古今笑叢). One is Toyo Bunko(東洋文庫)'s, and the other is Garam Collection's. Toyo Bunko's is named *Go-Gŭm-So-Chong* that had been edited by extracting a little part from *Eo-U-Ya-Dan*(於于野談), *Ha-Dam-Gi-Mun*(荷潭記聞), *Jam-Gok-Pil-Dan*(潛谷筆談), *Jong-Nam-Chong-Ji*(終南叢志) and *Cheon-Ye-Rok*(天倪錄). And after this, it had been combined *Myeong-Yeob-Ji-Hae*(萸葉志譜) in a single volume. Garam Collection's is named *Go-Gŭm-So-Chong* too, but that edited by extracting some parts from *Chon-Dam-Hae-I*(村談解頤), *Eo-Myeon-Sun*(禦眠榭), and *Sok-Eo-Myeon-Sun*(續禦眠榭) that contains some obscene stories. So far, it has been Toyo Bunko's named *Go-Gŭm-So-Chong* published by Hong, Manjong(洪萬宗, 1643~1725). But by the new discovery of *Bu-Bu-Ga*(覆瓿藁) contains the preface of *Sok-Go-Gŭm-So-Chong*(續古今笑叢序), it could be supposed that both of the *Go-Gŭm-So-Chong* and *Sok-Go-Gŭm-So-Chong* had been edited by Hong, Manjong. In addition, after reviewing related records,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Garam Collection's named *Go-Gŭm-So-Chong* is not under the pretense. And some obscene stories that edited and inserted by Hong, Manjong in *Sok-Go-Gŭm-So-Chong* had been carried and denominated the name of *Go-Gŭm-So-Chong* by someone who had transcribed those works.

keywords: *Go-Gŭm-So-Chong*(古今笑叢), Toyo Bunko(東洋文庫), Garam Mungo(嘉藍文庫), Hong-Manjong(洪萬宗), obscene story

접수일자: 2019. 3. 31.

심사기간: 2019. 4. 1.~2019. 5. 10.

게재결정: 2019. 5. 10.